

미얀마 '피의 일요일'... "최소 18명 숨지고 30명 부상"

쿠데타 이후 최악 유혈사태

양곤·다웨이 등 사망자 속출

여러 도시 많은 시민 사망한 듯

유엔 인권사무소는 지난 28일 반(反) 쿠데타 시위대에 대한 미얀마 군경의 무력 사용으로 최소 18명이 숨지고 30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미얀마 현지 매체와 외신들은 이날 오후 시위대 1명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고 전한 뒤 시간이 지날수록 4명, 7명, 11명까지 늘었다고 보도했다.

특히 유엔인권사무소는 "수집된 정보에 따르면 오늘 하루 동안 미얀마 여러 지역에서 경찰과 군의 무력 사용으로 최소 18명이 숨지고 30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앞서 유엔 관계자는 이날 양곤에서 최소 5명이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의사는 양곤에서 열린 쿠데타 규탄 시위에 참여한 남성이 가슴에 총을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고 말했다. 양곤 사망자 중에는 교사들 시위에 참여한 여성도 포함됐다. 그는 경

찰의 무차별적인 진압 작전 이후 심장마비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웨이 지역 정치인 초 민 티깨는 "경찰 발포로 다웨이에서 3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만달레이에서는 여성이 머리에 총을 맞아 숨지는 등 3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집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 도시에서 더 많은 시민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미얀마 시민들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사망자 소식을 보면 이날 양곤 2명, 민간준 1명, 다곤 1명, 다웨이 5명, 만달레이 1명, 바고 3명, 파코쿠 1명, 메이 2명 등 20명이 숨졌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네티즌은 다웨이 5명, 양곤 4명, 메이 7명, 바고 3명, 만달레이 1명, 파코쿠 1명 등 21명이 숨졌다고 주장하는 등 사망자 수가 조금씩 다르다.

미얀마 시민들은 쿠데타 발생 이후 최악의 유혈사태가 벌어졌으며 '피의 일요일'이라 칭하고, 총 맞은 시민 사진과 동영상 등을 SNS에 올리며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심각한 부정이 발생했는데도 문민정부가 이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1일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 /연합뉴스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시민들이 군부 쿠데타 규탄 시위 도중 숨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미얀마에서는 이날 쿠데타 발발 이후 최악의 유혈사태가 빚어져 최소 18명의 시위대가 숨지고 30명이 다쳤다고 유엔인권사무소가 성명을 통해 밝혔다. /연합뉴스

국제사회 미얀마 유혈사태 강력규탄...美 "추가대응 나설 것" 유엔 "용납 안될 폭력"

미얀마 군경이 지난 28일(현지시간) 민주화 시위대를 무력 진압해 최악의 유혈 사태를 일으킨 데 대해 서방 국가들이 일제히 강력 규탄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군부 인사들을 겨냥해 추가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제이코 셸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성명에서 희생자 유족에게 조의를 표하는 동시에 미얀마 군부에 추가 제재를 경고했다. 그는 "목숨을 잃은 용감한 시위대의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애도를 전한다"면서 "폭력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추궁하고, 버마인들을 향한 우리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력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셸리번 보좌관은 이어 "우리는 최근 쿠데타 및 폭력 발생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추가 대가를 부과하기 위한 추가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을 포함해 미얀마 군부 인사들에게 자산 동결 등 제재를 부과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미얀마 군경이 "혐오스러운 폭력"을 휘둘렀다고 비난하고 "우리는 버마(미얀마)의 용감한 사람들과 굳건히 연대한다"며 민주화 시위를 다시 한번 지지했다.

그는 "그들의 의지를 지지하는 데 모든 나라가 동일한 목소리를 내기를 촉구한다"면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계속 책임을 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얀마에서는 이날 군경이 민주화 시위대를 무력 진압하면서 18명 이상이 숨져 지난 1일 군부 쿠데타 이후 최악의 유혈 사태가 벌어졌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도 이날 성명을 내고 "평화적 시위대에 치명적 폭력을 쓰고 임의 체포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 "국제사회가 함께 나서 군부를 향해 선거로 표출된 미얀마인들의 뜻을 존중하고 억압을 멈춰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럽 국가들도 한목소리를 냈다.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폭력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불법적

으로 전복하는 데 정당성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비무장 민간인을 상대로 총을 쏘는 것은 군경이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했다는 점을 보여주며,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EU가 즉각 이런 상황 전개에 대응해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제재가 압박했음을 예고했다.

영국 외무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미얀마 군부의 무력 진압이 "혐오스럽다"고 비난하고 군부 지도층이 민주주의를 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외무부는 "영국은 미국, 캐나다와 협력해 미얀마 군부 인사 9명을 상대로 인권 제재를 내렸다"면서 "이런 폭력이 중단돼야 하며 민주주의가 회복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미국 한인단체 램지어 교수직 후원 미쓰비시 불매운동 나서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로 규정한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역사 인식에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미국에서 한인들이 일본 기업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불매운동(보이콧)에 나섰다.

미 북부 캘리포니아주의 한인단체들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청원 사이트 '체인지닷오르그'(change.org)에 미쓰비시의 제품을 상대로 불매운동을 전개하자는 청원을 올렸다.

'위안부 유네스코'란 이름으로 제기된 이 청원은 '미쓰비시를 보이콧하자'란 제목 아래 "이 청원은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마크 램지어의 거짓되고 해로운 주장에 관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인단체들은 이 청원에서 램지어 교수의 직함이 '미쓰비시 일본 법률 연구 교수'란 점을 지적했다. 램지어 교수는 대표적 전범기업인 미쓰비시가 하버드대에 조성한 기금으로 임용됐다.

한인단체들은 "자동차와 TV, 전자 부품 등을 포함한 모든 미쓰비시 제품의 구매를 거부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청원에 동참하려는 사람은 웹브라우저 주소창에 'BoycottMitsubishi.com'이나 'BoycottMitsubishi.org'를 입력하면 이 청원 사이트를 찾아갈 수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퇴임후 첫 연설...신당창당 부인·차기 출마 가능성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신당 창당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현지시간)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열린 보수진영의 연례 주요 행사인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연설에서 "누가 알겠느냐. 나는 그들을 패배시키고자 세 번째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차기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을 열어둔 언급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층에서 트럼프의 인기는 여전히 높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의 언급은 공화당 내 잠룡들이 트럼프와 경쟁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

야 하기에 공화당을 얼어붙게 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간 보수 매체와 전화 인터뷰를 하긴 했지만, 공식 석상에서 연설한 것은 지난달 20일 퇴임한 지 39일 만에 처음이다. 이날 공식 연설을 계기로 정치 활동 재개를 공식화하면서 차기를 도모하려는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설에서 민주당이 대선을 "훔쳤다"는 주장을 반박하면서 민주당이 4년 뒤 백악관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랑스럽고 열심히 일하는 미국 애국자들의 운동은 이제 막 시작됐다"면서 "결국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선 이후 공화당 지도부와 마찰을 빚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간 세간에 떠돌았던 신당 창당설을 공식 부인했다. 그는 자신이 제3의 정당을 만들려고 한다는 일부 미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한 뒤 "나는 신당을 창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에게 공화당이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단합되고 강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바이든 대통령의 멕시코 국경 및 이민 정책과 대응행으로 더딘 등고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바이든은 '현대 역사'의 역대 대통령 중 가장 형편없는 첫 달을 보냈다"고 혹평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현재 50%가 넘는다. /연합뉴스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 특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아지랑이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위를 쳐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없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피스텔 신축부지

회사 사정상 매매 문의. 010-3605-5000

대구 대인동 롯데백화점 근처

대지 515㎡(구. 156평), 중심상업지역 / 오피스텔 허가 득 (기타 업종 가능) 지하1층, 지상9층, 64호실, 47㎡(구. 14평) / PF 28억 가능, 지하 1층 공사 중 매매 - 20억(토지 17억 + 공사비 3억)

북구 신안동 KT전화국 건너편

대지 582㎡(구. 176평), 중심상업지역 / 오피스텔 허가 득 (기타 업종 가능) 지상10층, 72호실, 47㎡(구. 14평) / PF 40억 가능, CIP공사 완료 매 - 21억

북구 신안동 용봉초등학교 근처

대지 463㎡(구. 140평), 중심상업지역 / 오피스텔 허가 예정 지상10층 가능, 63호실, 47㎡(구. 14평) 매 - 11억